

10년간 무명디고 인기스타로 ... 목포 출신 개그우먼 박나래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요”

‘나 혼자 산다’·‘짱내투어’ 등 다수 출연
‘웰컴 나래바’ 에세이도 출간해 눈길



“문득 지금 제 상황이 ‘트루먼쇼’ 같을 때가 있어요. 이게 다 가짜인 건 아닐까? 꿈은 아니지? 라며 스스로에게 물어보곤 해요. 너무 열렬하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대세’ 개그우먼 박나래(32·사진)와의 인터뷰는 결국 22일 전화로 이뤄졌다. 그가 너무 바빠서 도저히 만날 시간이 되지 않았다. 인터뷰도 스케줄 중간 이동하는 저녁 시간에 간신히 이뤄졌다. 그는 “너무 죄송하다”고 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요청했던 인터뷰가 성사되니 ‘감지덕지’였다.

고정 프로그램만 6개다. 그는 스스로도 이런 상황이 믿기지 않는데 ‘트루먼쇼’ 이야기를 했다. ‘트루먼쇼’는 1998년 짐 캐리가 주연을 맡은 블랙 코미디 영화다. 완벽한 삶을 사는 줄 알았던 주인공이 사실은 완벽히 꾸며지고 통제된 가짜 삶을 살고 있었다는 얘기다.

박나래는 현재 MBC TV ‘나 혼자 산다’, tvN ‘코미디 빅리그’와 ‘짱내투어’, JTBC ‘슈가맨2’, MBC에브리원 ‘비디오스타’, SBS모바일 ‘박나래의 복불쇼’에 출연하고 있다.

“불과 2년이에요. 2015년 9월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이후로 제 삶이 바뀌었어요. 10년 무명이었다가 갑자기 달라진 거죠.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2015년보다 2016년이, 2016년보다 2017년이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그는 이 말을 여러 번 했다)”

“2006년 K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지만 2005년부터 개그를 했으니 10년간 무명이었어요. 하지만 무명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죠. 제 성격상 가만히 있지 못하기도 하고요. 그 시절 디제잉, 일본어, 요리 등 이것저것 배웠는데 그런 것들이 방송에 출연하면서 하나둘씩 써먹게 되더라고요. 저를 아는 사람들은 ‘나래는 진짜 안 변하는 것 같아’라고 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은 모두 예전부터 꾸준히 하던 거예요. 세상에 알려지고 나서 갑자기 하게 된 것들이 아니에요.”

148cm의 작은 체구지만 그는 예나저나 예나저나 멀티플레이어다. 관찰 예능 ‘나 혼자 산다’를 잠깐만 지켜봐도 박나래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해치운다는 사실을 목격할 수 있다.

“제 장점이자 단점이 빨리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요. 안 좋은 일을 속에 쌓아두지 않고 그때그때 얘기하고 풀고 넘어가려고 해요. 잠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죠. 저는 혼자 밥 먹는 것도, 혼자 술 마시는 것도 싫어해요. 바쁜 와중에도 계속 사람들을 만나 함께 먹고 마시는 가운데 에너지를 얻는 것 같아요.”

여러 프로그램을 바쁘게 오가는 생활 속에서 그는 최근 책도 냈다. 에세이 ‘웰컴 나래바’다. TV에서 자주 공개된, 박나래가 집 안에 꾸며놓은 ‘나래바’(Bar)에 관한 에세이다. 그가 지인들과 어울리는 이 공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단골은 누구이며, 어떤 음식을 먹으며 즐기는지 등이 담겨있다.

인기 스타가 됐지만, 자기 이름을 내건 책을 낸다는 건 또 다른 의미다. 전남남도 목포에서 개그맨의 꿈을 품고 상경한 후 10년 무명 생활을 거친 박나래가 책까지 낸 것이다.

“정말 친한 목포 동창이 인터넷에서 예매해서 제 책을 받아보더니 ‘내가 박나래가 쓴 책을 읽는 날이 오다니’라며 감격했어요. 바쁘게 방송 활동을 하는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뿌듯하고 감격스럽죠. 제가 책을 좋아하지만 직접 책을 쓸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이날 날이 오네요.”

그런 그에게 힘든 게 있다면 무엇일까. “성대에 물혹이 생겨서 제거하는 수술을 두 번이나 받았어요. 병원에서선 조금조금 말하는 습관을 가지라는데 제 성격상 그게 되나요? 더 열심히 하고 싶는데 목소리가 안 따라올 때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 힘든 건 없어요. 제 30대가 너무 멋지게 시작될 것 같아 감사할 뿐이에요.” /연합뉴스



2018년 안방극장 대격돌 예고

지상파 3사·tvN·OCN 등 130편 편성

‘태양의 후예’ 등 한류 인기로 스케일 커져

‘치킨 게임’이나, ‘원왕’이나. 좁은 한국 땅에서 2018년 치열한 드라마 전쟁이 시작된다. 수십년 지상파 3사의 전유물이었던 드라마가 몇년 전 tvN의 가세로 4편이 되더니, 올해는 JTBC와 OCN의 약진으로 6편이 됐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올 하반기 tvN과 JTBC가 드라마 편성 띠를 확대하더니 내년 초에는 OCN이 가세한다. 또 올리브와 온스타일, 드라마맥스, TV조선과 채널A, MBN 등 다른 케이블, 종편채널도 드라마를 내놓는다.

단막극장과 KBS 2TV 금요드라마, MBC TV 예능드라마도 기회가 되는 대로 출동할 예정이다. 월화 미니시리즈만 매주 밤 9~12시 최소 6편이 방송되는 식이다. 수목 미니시리즈도 매주 5편이 찾아온다. 여기에 동영상 스트리밍업체 넷플릭스가 ‘킹덤’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한국 드라마 판에 뛰어들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웹 전용 드라마는 별도다.

드라마업계에서는 각 방송사 편성 스케줄을 따진 결과, 유례없이 많은 110~130편의 드라마가 내년 방송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중 스타들의 격전장인 미니시리즈 드라마만 80~85편이다. 과연 그 결과는?

한국 드라마업계가 팽창한 첫번째 계기는 2003년 일본에서 ‘겨울연가’가 초대박을 친 이후다. 한류나 수출은 생각도 하지 않고 내수 시장만을 바라보며 제작하던 드라마업계가 수출에 눈을 뜬 게 이때부터다. 제작사 수가 급증했고, 이른바 ‘한류 드라마’ 기획이 이어졌다. 이후 10년 일본 시장이 이에 부응하면서 드라마업계의 몸집을 키웠고 산업화됐다.

두번째 계기는 2014년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 대륙을 흔들면서 찾아왔다. “눈 오는 날에는 차맥”이라는 대사와 함께 드라마가 중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주인공 천송이(전지현 분)가 걸치고 나온 모든 옷과 화장품이 완판되는 등 드라마가 일으킨 경제 효과가 엄청났던 드라마업계는 다시 들쭉했다. 너도나도 중국을 겨냥한 드라마 기획에 들어갔다.

이어서 2016년 ‘태양의 후예’가 세번째 계기를 마련했다. 중국 당국이 ‘태양의 후예’의 뜨거운 인기로 인해 경제력을 내릴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자 드라마업계는 스케일을 키우기 시작했다.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 시장을 개척했다면, ‘태양의 후예’는 중국 시장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고취했다. 그 결과 이전까지는 제작비 문제 등으로 불가늠할 것이라 여겨졌던 다양한 기획이 쏟아졌고, 로맨틱 코미디에 국한됐던 한류 드라마의 질적, 외형적 확대가 본격화됐다.

생각지도 못했던 중국의 금방령(禁韓令, 한류 금지령)이 이러한 열기에 얼마 안 가 찬물을 끼얹었고 그게 1년 넘게 드라마업계를 얼어붙게 했지만, ‘제2의 태양의 후예’를 노린 골드러시는 막지 못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2018년 드라마 제작 편수 급증으로 이어지게 됐다.

한정된 배우 풀 속 드라마 제작 편수가 늘어나니 배우 캐스팅 난이도 시작했다. 동시에 스태프 구인난도 벌어져 조명, 편집 등 스태프 몸값이 급등했다. 드라마를 완성해서 시청률 성적표를 받는 것은 두번째 문제다. 숙련된 스태프, 연기력과 인지도를 겸비한 배우를 캐스팅해 드라마를 제작하는 일 자체가 전쟁이 됐다.

tvN 관계자는 “스태프 구인 대란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며 “구두로 계약을 한 스태프가 다음날 연락이 안되면 백프로 다른 드라마 제작현장에 가 있다. 당연히 더 많은 돈을 받고 가는 것”이라고 전했다.

배우 캐스팅 전쟁이 벌어지면서 조연급, 신인급에게는 기회가 문이 활짝 열렸다. 톱스타의 몸값은 부르는 게 값이 됐고, 그 과정에서 화망 출연료로 1억5천만원을 요구한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 또 주인공으로 내세울 스타가 턱없이 부족해지면서 과거 같은 주인공이 될 수 없었던 배우들에게 주인공 역할이 주어진다.

중국 시장도 닫히고, 국내 광고 시장도 침체된 가운데 드라마 제작 편수가 늘어나게 되니 전망이 밝지는 않다. 2018년 한 해 드라마업계가 극심한 출혈 경쟁 속 ‘치킨 게임’을 치른 후 경쟁력 있는 제작사와 방송 시간만 살아남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성탄특집 죽음보다 강한 사랑 손양원 (재)	15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 20 MBC네트워크특선 (재)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5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 20 아시아의 전통시장 50 여유만만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30 성탄특집 생방송 오늘아침	25 닥터 365 30 해피 시스터즈
9	30 KBS 뉴스 40 팔도방송 스페셜	00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만만	30 성탄특집 복면가왕 1~2부 스페셜	10 성탄특집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KBS대기획 요리인류 도시의 맛 (재)		20 애니메이션 런닝맨 스페셜 50 애니멀 워터 스토리
11	00 생로병사의 비밀 55 UHD 한식 (재)	50 저글러스 (재)	25 성탄특집 라디오스타 1~2부 스페셜	
12	00 KBS 뉴스 12 10 성탄특집 걸어서 세계속으로 (재)			00 KBS 뉴스 10 의문의 일승
1	00 네트워킹기획 문화산책 50 성탄특집 영동발달 공순이와 친구들 4	50 VJ 토크대	05 MBC 뉴스 15 돈꽃 (재)	2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재)
2	15 성탄특집 브레드 이발소 45 성탄특집 UHD 다큐 어군 헤브론	50 특선 영화 <꾸뚬씨의 행복여행>	30 지식 통조림 35 겨울방학특선 공연 호두깨끼 인형	30 지식 통조림 35 겨울방학특선 공연 호두깨끼 인형
3	35 다큐 공감 (재)		45 오지의 마법사 스페셜	40 삶의 소리 백성의 밥상
4	25 특집 다큐 슬로우 피시, 말린 생선의 비밀			15 닥터 365 20 SBS 뉴스 30 미운 우리 새끼 (재)
5	15 공감다큐, 사람 (재) 35 UHD 한식(재)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발레교습소 백조클럽 스페셜	00 MBC 뉴스 35 성탄절에도 나 혼자 산다 1~2부	50 2017 SBS가요대전 1~2부
6	00 6시 내고향 40 행복한 지도	30 2TV 생생정보		
7	00 KBS 뉴스7 35 우리말 겨루기	50 내 남자의 비밀	15 전생애 퀘스틀 55 MBC 뉴스	
8	25 미워도 사랑해	30 제보자들	35 투깝스(재)	55 SBS 8 뉴스
9	00 KBS 뉴스9 40 가요무대			15 KBC 8 뉴스 30 성탄특집 생활의 달인
10	40 KBS 뉴스라인 50 성탄특선영화 마린느와 마가렛	00 저글러스	00 투깝스	00 의문의 일승
11		10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	10 테마기획 길	1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부
12	10 이웃집 찰스 (재)	50 사랑의 가족 (재)	10 천년의 전라도 25 겁 없는 녀석들 스페셜	30 브루노 마스 in New York

EBS1			
05:00 양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아시아기획 -홍콩의 밤, 평안을 빌다)	09:30 우리는 비트몬스터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아시아기획 -홍콩의 밤, 평안을 빌다)	15:45 부릉!부릉! 블루미즈 16:00 얼마 까투리 16:15 두다다롱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16:45 덩동명 유치원 1~2(재) 17:15 로보카 폴리 17:3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7:45 호기심 소녀 도트 18:00 생방송 토크! 보너하니~4 19:00 로또 발명왕 리스티 19:30 EBS 뉴스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20:40 다큐 오늘 (산골마을 온갓집)	20:50 세계테마기행 <알로하! 하와이 - 무지개빛 지상천국, 오아후> 21:30 한국기행 <나는 공이다2 - 어시징의 고수들> 21:50 EBS 다큐프라임 <생선의 종말 - 신이 된 물고기, 참치> 22:45 엄마를 찾지만 23:35 까칠남녀 24:25 세상의 모든 범죄 24:30 세계의 드라마 (트레블리온 1부)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25일 (음 11월 8일 丙戌)

子	48년생 안정된 궤도에 진입하게 될 것이니 마음을 폭 놓아도 된다. 60년생 시선이 가지 않았던 곳에 관심을 돌릴 때다. 72년생 똑 같이 인식한다면 큰 혼란으로 이어지느니라. 84년생 반격로움이 대단할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72, 34	午	42년생 추진력이 필요하다. 54년생 역올한 피해 당할 수 있는 날이다. 66년생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78년생 신방성을 참고하지 않는다면 오행의 소기가 다분한 판국에 위치하느니라. 90년생 준비해 두었던 것을 적절하게 쓰게 된다. 행운의 숫자 : 96, 38
丑	49년생 누적된 모순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많은 손재가 따른다. 61년생 모두가 자신의 마음과 같지는 않아서 무척 힘들 수 있다. 73년생 대단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85년생 조정해야만 할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 행운의 숫자 : 33, 76	未	43년생 주된 것에 혼신의 힘을 쏟아 부어야 할 때다. 55년생 위기를 모면하는 국량이 나타나 있다. 67년생 절치면 않을 것이니라. 79년생 액면 그대로 믿다가는 큰 고 다칠 수 있다. 91년생 슬기롭게 대처해 나아가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66, 69
寅	50년생 지켜보고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62년생 세 말하게 재검토하지 않으면 허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74년생 역경은 경연으로써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니라. 86년생 중론에 좌우되지 말고 소신껏 판단하자. 행운의 숫자 : 27, 63	申	44년생 결정적인 순간이니 주목하고 있어야겠다. 56년생 조건이 주어졌을 때 과감하게 확보해야 한다. 68년생 본분을 제대로 파악해야 대국의 조성에 차질을 빚지 않는다. 80년생 주관에서 벗어난 객관적 시각과 판단이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69, 17
卯	51년생 의도하고 있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요령이 깊어진다. 63년생 정성을 다하여 실행한다면 성과가 있겠다. 75년생 주의를 다 한다면 무탈하리라. 87년생 주변의 성구에 의해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83, 80	酉	45년생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꼭 이해해야만 하는 절대적 요건이 주어진다. 57년생 착각의 늪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엄청난 해를 입게 된다. 69년생 의도하는 요소가 있기는 하나 존재 방식이 다르다. 81년생 구슬수를 조심하자. 행운의 숫자 : 13, 36
辰	52년생 우려하고 있는 바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이고 방어적이 절실하다. 64년생 신선히는 있지만 미숙함으로 인해서 불안전하다. 76년생 안전에 관한 의식이 우선 되어야 한다. 88년생 생 가법게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47, 71	戌	46년생 희망을 상징하는 일곱 색깔의 무지개가 걸려 있다. 58년생 중요한 일을 다루게 될 것이 심사숙고해야 한다. 70년생 결과적으로는 금권에 휘둘리게 될 수이다. 82년생 결정적인 판단은 보류하는 것이 생산적이다. 행운의 숫자 : 75, 22
巳	53년생 원래부터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따져 볼 일이다. 65년생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리라. 77년생 가장 가까운 이로부터 시작되는 유혹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89년생 대폭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행운의 숫자 : 10, 81	亥	47년생 가시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높은 차원으로 지향하는 것이 좋다. 59년생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다면 차치해도 된다. 71년생 바쁘더라도 순서가 있는 법이니 기다려라. 83년생 처우부터 끝까지 균일해야 실효적이다. 행운의 숫자 : 07, 73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